

지역 상권 살리겠다는데 '찬물 끼얹는' 정부

광주상생카드 발행 5일째 400억 돌파...내년 1조3200억 수요 예상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 삭감...지자체, 발행규모 축소 등 대책 고민

지역화폐 인기에 힘입어 내년에 광주에서만 1조 3200억원에 달하는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재개한 광주상생카드 발행액이 닷새 만에 400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내년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나온다.

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역화폐인 이달 1~5일 광주상생카드 발행액은 435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리 발행한 상생카드(선불·체크)에 충전한 금액은 363억9200만원이었고, 은행 영업일 이틀 동안(4~5일) 판매한 선불카드는 71억3300만원 상당이다.

이는 지난해 한 달 평균 광주상생카드 발행·충전 금액(1019억원)의 절반 가까이(42.7%)에 달하는 규모다.

광주상생카드는 10%에 달하는 할인율 덕분에 인기를 끌었지만 예산이 떨어지면서 지난 6월9일부터 발행이 중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광주지역 지역화폐 발행액은 6434억원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3489억원)과 서울(6213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같은 기간 인천 발행액이 3조3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조7941억원), 대전(1조5077억원), 대구(9924억원) 순으로 많았다.

8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발행된 지역화폐는 1조 8916억원에 달했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발행이 중단됐던 광주만 '0원'으로 나타났다.

이달 광주상생카드 판매를 다시 시작한 닷새 만에 400억원 넘게 발행된 가운데 내년에는 광주지역 지역화폐 수요가 1조32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상생카드 발행·충전 액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864억원에서 2020년 8641억원, 지난해 1조2230억원 등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행안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를 해보니 전국 발행 규모는 26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 규모가 4조76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조6000억원, 대전 2조2000억원, 부산 2조 원, 전북 1조5870억원, 경북 1조5750억원, 충남 1

조4580억원, 광주 1조3200억원, 대구 1조3000억원, 서울 1조1350억원, 충북 1조1160억원, 전남 1조590억원, 경남 1조282억원, 울산 1조원, 강원 7710억원, 제주 600억원, 세종 4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

지난 6월 발표된 감사원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류민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0월 지역화폐로 인해 발생한 역대 거래 순환 효과는 광주 1324억원·전남 1521억원 상당이다. 가맹점에 대한 추가 현금 지출액 등을 더한 부가가치는 광주 833억원·전남 95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설문문을 통해 상품권 도입 전후 매출을 따져보니 가맹점당 월평균 매출 증가액은 광주 87만4900원·

전남 87만4400원 등 전국 평균 증가액(87만5000원)과 비슷했다.

이 같은 지역소비 증대 효과에도 정부가 내년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자치단체들은 발행 규모와 할인율 축소 등의 지구책을 마련 중이다.

광주의 경우 할인율은 10%로 이전과 같지만, 한도는 축소됐다.

기존에는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50만원씩 월 충전·사용액 1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카드 구분 없이 50만원까지만 할인된다. 월 최대 10만원 할인 혜택이 5만원까지로 줄었다.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는 사용하는 소비자나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경제적 효과도 이미 입증된 효과 지역사업"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이미 벌써 지역화폐 할인율을 줄이거나 발행액 축소하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반갑지 않은 풍년...전남 쌀 재고량 4.3배 늘어

전남농협 "올해 신곡 25만t 공급 과잉"...RPC 쌀 수급대책 논의

올해도 쌀 풍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전남지역 쌀 재고량이 지난해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협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22년 벼 수확기 농협 미국종합처리장(RPC) 광주전남협의회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올해 가을 수확한 쌀을 포함한 전남지역 농협 재고량은 지난달 27일 기준 6만9000t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1만6000t)의 4.3배(331.3%) 수준이다.

전국 농협에 쌓인 쌀 재고량은 28만9000t으로, 전남은 4분의 1(23.9%)을 차지하며 가장 많다.

남치는 재고 탓에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정곡 80kg)은 16만157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만5264원)보다 24.9%(-5만3692원) 폭락했다.

80kg 한 가마니 쌀값이 17만원을 밑돈 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벼 작황조사를 해보니 올해 예상 생산량은 386만t으로, 전년보다 2만(-0.5%) 줄었지만 수요량(361만t)보다는 25만t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초과생산량(25만t)보다 많은 35만t(구곡 10만t 제외) 격리로 쌀 시장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총회에는 광주전남RPC협의회장인 양용호 담양 금성농협 조합장과 보성농협 문병안 조합장 등 20여 명과 농협경제지주 백형일 양곡부장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2022년 쌀 수급 및 수확기 전망,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획 설명, 향후 수급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박서홍 본부장은 "올해도 쌀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남농협은 쌀값 회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열리는 '생활용품 슈퍼세일' 행사(7~13일)를 앞둔 6일 직원들이 할인 품목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백 광주점 '생활용품 슈퍼세일'

오늘~13일 30~70% 할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생활용품 슈퍼세일' 행사를 올해 두 번째 연다고 6일 밝혔다.

할인 행사는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지하 1층 푸드메이뉴에서 열린다.

행사 품목은 기존 가격에서 30~70% 저렴하게 선보여진다. 해당 품목은 화장지, 세제, 목욕용품, 섬유유연제 등이다. 참여 브랜드는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애경 등 총 12개이다.

광주점은 매일 3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 선착순 50명에게 롯데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한다.

5만원 이상 구매하는 광주지역 고객(일부 제외)은 상품을 무료로 집까지 받아볼 수 있다.

한복양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팀장은 "상반기에 진행했던 생활용품 행사를 고객들의 뜨거운 요청에 하반기에도 다시 진행하게 됐다"며 "다시 한번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더욱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을 엄선해 고객의 가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행적금 가입하고 경품 탔어요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V' &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외화적금V' 출시기념 행사 당첨자를 초청해 1등 국민관광상품권 200만원 등 경품을 전달했다. 이 금융상품은 여행상품을 이용할수록 사용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고 환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제공>

익산 민간공원 '중흥S-클래스 퍼스트파크' 본격 분양

중흥토건 전분주택 오픈 전용 59~99㎡ 795세대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7일 전북 익산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익산 중흥S-클래스 퍼스트파크' (사진) 건분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익산시 모현동2가 1-5 외 50필지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59~99㎡ 총 834세대 규모 중 임대를 제외한 795세대를 분양한다. 전용 59㎡(임대), 74㎡, 84㎡, 99㎡ 등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분양일정은 오는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5일로, 정당계약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다.

단지는 익산 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했다. 단지외 함께 갖



춰지는 모인공원은 약 9만㎡ 규모로 축구장 약 12배 크기로 조성된다.

이밖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영화관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한 데다, 의료시설과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도 가깝다.

반경 1.5km 이내 이리북일초, 고현초, 이리북중, 남성중·고 등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다.

한편, '익산 중흥S-클래스 퍼스트파크' 건분주택은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667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5년 9월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수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디자인진흥원 온라인 수출상담회 성과

2600만 달러 상담액·1800만 달러 계약 추진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 2600만 달러의 상담액과 1800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사진>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상담회는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수출상담회에는 ㈜나눔테크, ㈜코리아모빌리티 등 지역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해 가전, 생체 의료기기, 디자인 상품, 생활 소비재, 뷰티 등 지역 우수 제품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했다.

상담회에서 12개국 34명의 바이어가 참여, ㈜벤처프린터 등 4건의 현장 MOU를 체결해 34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성사됐다.

송진희 디자인진흥원장은 "내년에는 '2023광주디자인엔날레'와 연계해 해외바이어를 직접 초청, 최근 2년간 진행되어온 '온라인 수출상담

한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37.86(+22.64)
↑ 코스닥	706.01(+20.67)
↓ 금리(국고채 3년)	4.145(-0.012)
↓ 환율(USD)	1402.40(-7.70)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